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월, 새롭게 출발하는 모임과 행사

다락방모임, 4학기 성경대학,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등

교회는 다양하게 진행했던 여름행사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몇가지 행사와 모임들로 새롭게 출발한다.

잠시 중단했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교회 학교의 여름행사와 휴가 등으로 그간 쉬었던 다락방 모임을 재개하면서 각 다락방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새로이 시작하기 전 다락방장을 위한 교육이 종전과 같이 수요일·II부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는 다락방 모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다락

방장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지침들이 제시된다. 또한 이 자리에선 같은 교구에 속한 여러 다락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따라서 다락방장은 다락방 식구들의 영적 성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 4학기 성경대학이 다음 중에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는 롯기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등이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읍기반의 강의와 음악교실도 계속 된다. 성경대학은 매주 1시간의 강의를 추석연휴를 제외한 10주간 계속된다. 등록비는 각

과목당 오천원이며 처음 등록하는 수강자는 입학금 오천원을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및 수강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 당일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4학기를 맞는 목회자신학세미나도 다음 주 개강한다.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이번 학기 세미나에서는 위경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교회

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제 1교시에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로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며 한편 제 2교시에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국방의 위기와 안보',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등의 특강으로 작금의 갖가지 위기를 진단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9월 교회 주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2일	다락방장 교육 재개(매주 수요일 I·II부 예배 후)
5일	피택장로교육 재개(매주 토요일 오전 6시)
7일	목회자신학세미나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7~10일	성경대학(롯기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읍기반 및 음악교실) 개강 (10주간)
27일	9월 새가족환영회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롯기	월요일 오전 11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마태복음	월요일 오후 8시	김정현 목사	9월 7일
	요한서신	화요일 오전 6시	민영수 목사	9월 8일
	요나	화요일 오후 8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읍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0일
음악 교실	음악이론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진희 선생	9월 10일
	발성과 가창훈련	목요일 오후 8시 15분	배영준 집사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4학기 프로그램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7.	느헤미야서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9. 14.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9. 21.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김영한 교수 (숭실대)
9. 28.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노정선 교수 (연세대)
10. 12.		국방의 위기와 안보 송영대 회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0. 19.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이동원 목사 (지주촌교회)
10. 26.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김세열 총장 (한남대)
11. 2.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나석호 변호사 (사랑중합법무법인)
11. 9.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박영신 교수 (연세대)
11. 16.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이원설 이사장 (기독교대학연맹)

이사야 강해

죄와 벌

이사야 10장 5 - 19절

인과응보(因果應報)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와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받을 상벌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밖으로부터는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는 환난을 맞게 됩니다.

1. 여호와와의 막대기로 사용 받은 앗시리아

앗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사용 받은 앗시리아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우월해서 남을 때리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이런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인데 앗시리아는 제가 힘이 있어서 유다를 이기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몽둥이가 된 앗시리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비록 주어진 힘이 오용되거나 남용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인데 인간이 힘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도 살리기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하시는 것입니다(6절).

2. 교만죄를 범한 앗수르

앗시리아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와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 밟게 하려 하기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상하였느니라...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사 10:5 - 19)

이중윤 목사



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시리아를 들어 단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고만 하셨던 것인데 앗시리아는 많은 나라를 파괴시키고 모조리 점령하여 자신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서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교만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앗시리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3. 하나님과 힘을 전주는 앗수르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정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의 신까지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앗시리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정도로 본 것입니다. 앗시리아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나니 참 신과 우상도 구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4. 크신 하나님

앗시리아의 무례와 무지가 얼마나 헛된 것

인가를 예언자는 분명히 말합니다(15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며 비웃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앗시리아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했다

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산헤립 왕이 열방의 신상을 다루듯이 여호와를 위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멸망뿐입니다. 막대기가 징계에 사용되었거나 또는 연약한 자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산헤립 왕을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다음에 파멸에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앗시리아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림이 다 타버리고 어린아이가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모두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길에서

광 · 고 · 유 · 감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

김봉수(제 6교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광고 속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 홍수 속에 생활한다.

TV를 켜면 기업상품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휴대폰 선전 중 유명 남자배우가 대나무 숲을 걸으며 중(僧)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또다른 세상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대사가 흐르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대기업이 특정 종파의 종교인을 광고 모델로 삼아 상품 판매에 효과를 보려고 한 기획에 유감을 표한다. 그 종파를 통해

복잡다난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많은 불특정 시청자에게 또다른 평안함을 제공하는 것처럼 혹하게 보일 것 같아 염려스럽고, 한 종파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음이 유감스럽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죄 지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큰 자비를 베푸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찌 진정한 평안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부활의 주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무 때고 두 손 모아 눈을 감으면 ‘또다른 만남’을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던가?

요즘 크리스찬들도 바쁜 세대에 뛰다보니 대부분 휴대폰과 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만 경향이 없어 꺼두지 않은 채 진짜 또다른 세상과의 만남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야 할 예배 시간에조차도 그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도 매주일 주보에는

휴대폰과 호출기 사용중지의 광고가 실려야만 한다.

그 광고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재고해 보길 바란다. 만약 종교적으로 편파적인 그 광고를 계속하려면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에 도착한 부부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카피와 함께 휴대폰을 끄는 모습도 방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교적인 편파성의 문제와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벨소리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 목전에 도래한 21세기를 앞두고 숨가쁜 변화 속에 복잡하고 새롭다는 것 - 실제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 을 대하면서 살고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나 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을 분별력있게 사는 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조용히 간구해 본다.



간증

“선교사의 심정으로 귀국합니다”

전금려(제 1교구)

저는 2년 전 순전히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온 조선족 교포입니다. 남편과 3남 1녀의 가족을 고향에 남겨 두고 온 2년 동안 두 아들을 백혈병과 심장병으로 각각 앓았고 가정부로 일하면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남편과 위장병을 얻은 큰아들 치료비 대기에 돈을 모으기는 커녕 오히려 빚을 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저는 얻고자 했던 돈은 비록 못 벌었지만 물질보다, 아니 천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주님을 영접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리 비참하게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서울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여겨지던 그 분이 나와 상관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그분의 고통받으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학습을 거쳐 지난 4월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성경암송대회에도 출전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나 늘 기도하는 중에 남편과 큰아들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는 기쁜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간 안타까웠던 것은 남의 집에 고용되어 있다보니 단지 새벽기도회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외엔 마음껏 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어린 아이 같았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서울교회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마음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복음에 빛진 마음을 고향에 돌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쏟으려 합니다. 선교사가 된 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할 수 없었던 봉사와 전도를 고향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쓰겠습니다.

순례자 컬럼

희망의 무지개

홍수로 인해 인간이 재앙을 맞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노아시대의 홍수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물로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였으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가르치실 때 노아 홍수를 언급한 것만 보아도 당대의 홍수가 얼마나 무섭고 우주적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재난 속에서도 유독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

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요 대인관계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므로 마침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얻은 자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미래 약속의 씨인으로써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

오늘의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자.

수재의연금 전달

우리 교회는 지난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수재민을 위한 특별현금을 했다. 국제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이 현금 전액을 우리 교단 총회 사회부에 전달하고 침수된 지역 교회를 중심한 구제사업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 예배당 입찰설명회

건축위원회는 지난 25일(화), 26일(수) 양일간 새 예배당 입찰을 하게 될 회사들을 초청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들은 9월 10일(목)까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케 되며 건축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회장 윤혜경) 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3일(목) 오전 10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갖는다. 김회원 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기념예배 후 강연회, 출판감사예배, 총체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 간에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망부 개교 6주년 기념행사

소망부에서는 개교 6주년을 기념하면서 'Home Coming Day' 행사를 6일(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소망부실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소망부를 거쳐간 지도교역자, 부장, 부감 및 교사들을 초청 지난 날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며, 장기결석자와 소망부 참석대상자이나 미참하고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여 소망부 부흥을 꾀하는 한편, 소망부 회원들의 친교와 주변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다.

청년부 70운동 전개

청년부에서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내적 부흥을 도모하고자 총동원의 날인 지난 주일부터 9월 20일(주일)까지 '청년부 70운동'을 전개한다. 청년부 참석 회원 70명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사도행전 통독, 창오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1인 1명 이상 전도하기, 청년부 사랑하기, 잃은 양 찾기, 회원간 주 1회 이상 전화하기, 한달간 결석 안하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을 결산하는 20일(주일)에는 '사랑의 만남' 시간을 통해 찬양과 감사의 잔치를 열 예정이다.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31일(월) CBS 월요초대석 대담프로에 출연한다. 1일(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책개발위원회에 참여한다.
- ◇ 노송성·이영옥 집사는 강서구 방화 3동 개화아파트로 이사했다 (☎ 661-1700)
- ◇ 박태선·김초일 집사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사했다 (☎ 576-9073)
- ◇ 최광성·이정연 집사는 강서구 방화 1동에 식당 "옛꼴"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661-5889)
- ◇ 오늘 점심식사는 이영주 집사·최양혜 권사가 제공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보고 계신다.

"순례자와 테이프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승료는 수혜자 부담

우리교회 부설 필그림출판사에서는 매주 발간되는 순례자와 주일설교 테이프 발송을 대행한다.

지방·군부대·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 순례자나 설교테이프를 보내기 원하는 성도가 테이프 값과 송료를 부담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이를 발송하게 된다. 국내 및 해외의 지역별 신청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은 연간 송료 혹은 송료와 테이프 값과 함께 신청인,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내면 된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1년, 단위:원)

구분	지역	국내	해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	북미 유럽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순례자		12,000원	26,000원	28,000원	33,000원	35,000원
순례자+테이프		65,000원	115,000원	120,000원	145,000원	160,000원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8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8월의 새가족 *

박봉선 박노정 백숙진 김명수 윤재혁 김은수 윤은석
백혜진 이승현 정종덕 홍순덕 김성환 이명화 김유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다락방 모임을 위해
2. 제 14학기 목회신학세미나를 위해
3.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